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mall>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small>	<h1>보도자료</h1>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 KISTI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대전(본원): 대외협력실 이종성 042 - 869 - 0976 / 이해준 0676 / 손영주 0997 문의: 원동균 R&D투자분석센터장 02-3299-6053		
배포번호 : 2019-56 배포일자 : 2019.08.21(수)	매수 : 보도자료 3매	배포처 : 대외협력실

“패키지형 투자플랫폼(R&D P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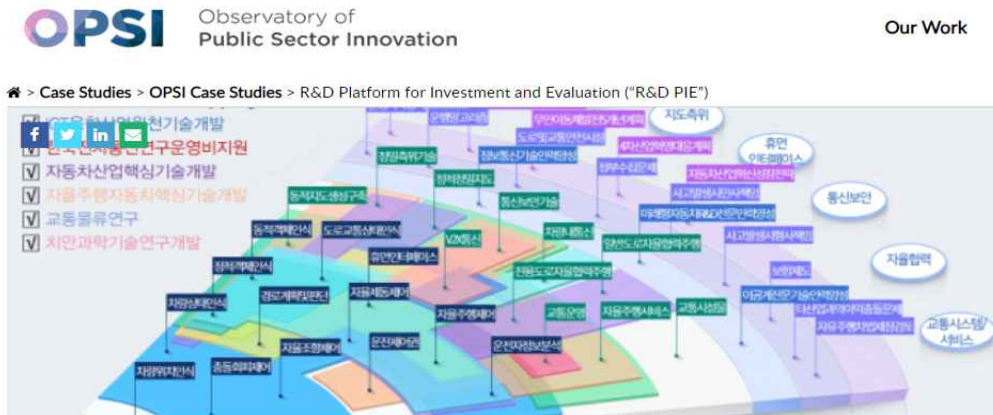
OECD가 뽑은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선정

행정안전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제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혁신사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이 수행중인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을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선에 선정하였다고 8월 19일 밝혔다.

OECD는 정부혁신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 혁신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혁신 사례를 새로운 접근법,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성과를 기준으로 이번에 OECD가 선정한 대한민국 혁신사례 중 중앙부처 정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투자·평가를 위한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이 선정되었다.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은 2017년 10월부터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 주도하에 KISTI R&D투자분석센터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R&D PIE) 기본모델 예시 (자율주행차) >



R&D Platform for Investment and Evaluation ("R&D PIE")

The Government of Korea is beginning to implement a new innovation investment model, 'R&D PIE', which leverages big data analytics and machine learning in order to assess disruptive changes in the technology landscape, and to identify overlaps and potential opportunities across the Korean ministries. Through this, the government has a way of identifying missing links in the innovation initiatives, fostering collaboration among agencies, universities, and companies, and solving social problems.

(출처: <https://oecd-opsi.org/innovations/rd-platform-for-investment-and-evaluation-rd-pie/>)

R&D PIE는 정부 R&D의 전략적 투자 및 新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보다 명확한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 정부 R&D 현황을 진단하여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자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

R&D PIE는 기존의 부처별로 산재된 R&D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패키지 단위로 종합적·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혁신성장 분야별로 공통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드론), 정밀 의료, 미세먼지저감, 스마트팜,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분야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세계 논문 및 특허 DB, NTIS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산업-정책-경제-사회 연계 모델을 설계하고, 상시적 국가 R&D 탐지 및 추적을 통한 투자전략 강화 및 적시적소 투자체계를 구축하였다.

KISTI R&D투자분석센터 원동규 센터장은 “R&D PIE가 국가 핵심 동력 분야에 대하여 환경적 변화 및 변동요인을 혁신주체의 기회발굴과 위험회피의 모멘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R&D 예보 및 조기경보체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R&D PIE를 「혁신성장지원을 위한 정부 R&D 투자 혁신방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혁신성장동력’ 등에서 공통적으로 중점 추진한 8개 분야 대상으로 2019년 예산에 R&D PIE를 시범 적용하였으며, 2020년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는 16개 부처, 192개 사업(약 1.6조원)의 예산 배분·조정에 본격적으로 활용하였다.

KISTI 최희윤 원장은 “R&D PIE가 전략적인 국가 R&D 정책수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미래 유망 산업군을 탐색하고, 관련 기술군들을 선별하여, 효율적·전략적 자원 투입배분과 이로 인한 성과 최대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R&D PIE를 통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겠다.” 고 강조했다.